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531 East Weddell Dr. Sunnyvale, CA 94089 [www.sjkoreancatholic.org](http://www.sjkoreancatholic.org)

예수 성탄 대축일 Christmas Mass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오늘 인류의 구세주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위로받기를 빕니다. 또한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의 탄생으로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참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두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둡고 죄 많은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힘은 사랑과 생명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비천한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낡은 생활을 청산하고 나 자신부터 똑바로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생활의 소중함을 깨달아 신뢰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나눔과 사랑으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원천과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발전과 성장만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인간존엄성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의 품위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 번 기뻐하며 생명의 빛이 두루 비추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하나 됨과 세상 구원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성인과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무리요(1618-1682), <예수 성탄>, 1646-50년, 유화, 197×147cm,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를 기원합니다.

##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 제1 ! 말씀의 전례

입당성가 - 91번

권고와 참회예식

성서 봉독

- 말씀 1 : 이사 62,

- 복 음 : 마태, 1, 18-25

### 제2 ! 구유 안치식

행렬 및 구유 안치 / 축성 및 분향

구유경배 : 성가 101, 중고등부 특송, 102, 112, 111, 107번

대영광송(성가대)으로 미사가 이어집니다.

### 제3 ! 미사

제 1 독 서 :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 졌습니다.

화 답 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

제 2 독 서 : 티토 2,11-14 :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환호성 : ◎ 알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 ◎

복 음 : 루가 2,1-14 : 오늘 너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성찬의 전례

봉헌성가: 초등부 특송, 106, 109번

성체성가: 108, 98, 청년성가대, 110번, 성가대 특송

파견성가: 484장

## 예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입 당 성 가 : 입 당 ( 103 )      봉 헌 ( 22, 102 )      성 체 ( 105, 108 )      파 견 ( 484 )

제 1 독 서 : 이사 52,7-10: 땅 끝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 답 송 : ◎ 우리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

제 2 독 서 : 히브리 1,1-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성 : ◎ 알렐루야.

○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밝았으니, 모든 백성들아, 와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다. ◎

복 음 : 요한 1,1-18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